

Ranitidine 수입“밀물”

피어리스 이어 종근당 생산중단 예정 ... 경쟁력 확보 관건

Ranitidine HCl의 수입대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피어리스 등이 이미 생산을 중단하고 있고 종근당에서도 94년 생산을 중단할 예정에 있어 수입의존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anitidine은 위궤양치료제제로 국내에서는 일동제약·피어리스를 비롯, 동화약품·종근당 등에서 생산·판매해 왔는데 국산의 내수가격이 비싸 88년 수입자유화이후 maker들의 수입원제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Ranitidine 연도별 국내 생산 및 수입추이를 보면 91년 7558KG, 92년 1만3999KG으로 수량대비 85.2% 큰 폭으로 증가를 보였으며 금액으로는 91년 735만5480달러, 92년 737만2465달러로 0.2% 증가에 그쳤다.

Ranitidine HCl 국내생산및수입추이							(단위 : KG, 1000원, 달러, %)		
구 분	1991		1992				1993상반기		
	수량	금액	수량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량	구성비	금액
생 산	7,458	7,345,780	8,464	13.5	6,855,845	▽6.7	4,150	45.4	3,742,213
수 입	100	9,700	5,535	5,435	516,620	5,226	4,990	54.6	370,865
합 계	7,558	7,355,480	13,999	85.2	7,372,465	0.2	9,140	100.0	4,113,078

이는 고가의 국산사용이 줄어든 대신 저가의 수입품 사용이 급증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수입량은 91년 100KG에서 92년 5535KG으로 무려 5435%의 증가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생산은 91년 7458KG, 92년 8464KG으로 13.5% 증가에 그쳤으며 금액으로는 91년 73억 4578만원, 92년 68억5585만원으로 6.7% 감소했다.

93년 상반기에는 국내에서 4150KG의 Ranitidine이 생산, 45.4% 구성비에 그쳤으며 수입은 4990KG으로 54.6%의 점유를 보이고 있다.

현재 Ranitidine 수입가격은 유럽산이 CIF기준 KG당 73~74달러선에 수입되고 있으며 인도산이 KG당 65달러선에 수입 거래되고 있다.

이에 비해 국산가격은 수입 이전 KG당 100만원선으로 현재 주사제용으로 KG당 10~20만원의 가격 하락이 있다하더라도 수입품과의 가격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itidine 수요처를 보면 일동제약이 자체생산해 소비하고 있고, 한국그락소에서는 종근당에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종근당에서는 한국그락소에 합자조건으로 KG당 65만원선에 판매하고 있으나 계약이 만료되는 94년부터는 생산을 중단할 예정에 있다.

이외 동화약품을 비롯 15여개 Maker들이 Ranitidine을 소비하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화일약품을 비롯해 대신약품, 화덕약품 등을 통해 수입,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1993/11/29>